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2] 다음은 상담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희 : (상담실에 들어서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 선생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선생님 : 응, 괜찮아. 여기 앉아서 편하게 말해 보렴. 무슨 일이니?

진희 : (자리에 앉으며)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 친구 문제나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는 선뜻 고민을 털어놓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그 친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상담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몇 친구들이랑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 오, 좋은 생각을 했구나. 선생님도 또래 상담 동아리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단다. ㉢ 물론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또래 친구들이 상담해 주는 것도 좋지. 편하게 얘기하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 갈 수 있으니까.

진희 : 네. 그런데 막상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어 상담을 할 생각을 하니깐 어떻게 상담하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몰라서요…….

선생님 : ㉣ 그러니까 상담 방법을 알고 싶다는 거지?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친구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 혹시 친구가 말하는 내용이 네 생각과 맞지 않아도 선불리 비판하지 말고.

진희 : ㉤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친구가 자기의 말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겠군요.

선생님 : 그렇지. 그리고 그 친구의 생각과 감정을 너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 그것 때문에 크게 힘들었겠구나.’처럼 말야.

진희 : ㉥ 아, 정말 그렇겠네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선생님 : 또,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얘기해 주며 용기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진희 : 네. 선생님,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선생님 : 그런데 상담을 하려면 이보다 알아야 할 것들이 훨씬 많단다.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상담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할 테니까 선생님이 관련 기관을 소개해 줄게.

진희 : 고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 또래 상담 동아리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 상대방과 공유한 정보를 근거로 태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 ③ ㉢: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말에 수긍함을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2. ‘진희’가 ㉡를 대상으로 ㉢를 홍보하기 위해 교내 방송을 하고자 한다. <보기>와 같이 내용을 조직하여 말하고자 할 때, 각 단계에 따른 발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1단계: 청자의 관심을 끌 질문을 던진다.
- 2단계: 문제 상황과 청자를 연관시킨다.
- 3단계: 청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4단계: 해결 방안의 효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 5단계: 청자가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

① 1단계	여러분, 드라마 ‘○○’ 보셨죠? 주인공이 또래 친구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위로받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② 2단계	
③ 3단계	여러분은 고민이 있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는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워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④ 4단계	이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하기 힘들었던 여러분의 고민을 △△ 상담 동아리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⑤ 5단계	고민을 털어놓지 않은 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 학급 게시판에서 상담 가능 날짜를 확인한 후 게시판에 있는 연락처로 신청하시고,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아 보세요.

[3~5]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지금까지 지역과 학교의 상생 협력을 위해 학교에 문화 체육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들어 보았습니다. ㉠ 이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 교수 : 시설 조성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학교에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조항만 있을 뿐, 학교에 설치할 시설의 기준이나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사회자 : ㉡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 윤 교수님의 말씀처럼 규정도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사업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지만 결국엔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B]

사회자 : ㉢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 네, ○○ 지역에서는 주민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주차장과 체육관 시설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들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요구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고 학교 시설 조성 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C]

사회자 : ㉤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제도적 보완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청중의 질의를 받아 보겠습니다.

청중 1 : 윤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조성 과 관련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면 사업 참여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할 때 이를 근거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규정에 얽매어 나뉘는, 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

윤 교수 : 학교 시설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협력 주체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

사회자 : 한 분만 더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중 2 : 저는 △△ 구청 직원인데요, 저희는 지역 내 학교에 공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 학교에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주차장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주차장 조성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 이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 [가]

3. ㉠~㉤의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해야 할 사안을 안내한다.
- ② ㉡: 토의 진행을 위해 다음에 발화할 토의 참여자를 지정한다.
- ③ ㉢: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의 장단점을 요약한다.
- ④ ㉣: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에 대해 추가적 정보를 요청한다.
- ⑤ ㉤: 두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4. 토의 참여자의 발화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윤 교수’의 의견을 듣고 ‘윤 교수’와는 다른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C]: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언급한 해결 방안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④ [D]: ‘윤 교수’의 의견을 듣고 ‘윤 교수’가 제시한 해결 방안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있다.
- ⑤ [E]: ‘청중 1’의 의견을 듣고 ‘청중 1’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 후,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고 있다.

5. ‘최 교수’가 토의 과정에서 드러낸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며 말한다고 할 때, [가]에 들어갈 발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가 원하는 것은 결국 재정적 지원이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②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 학교 측의 요구보다는 주차난의 해소라는 주민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③ 구청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④ 주차장 조성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학교가 시설 조성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므로 절차에 대한 규정부터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⑤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지역과 학교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시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등학생의 작문 과제 수행 일지

- 예상 독자: 학교 신문을 읽을 학교 친구들 ㉠
- 글을 쓰게 된 배경: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친구들이 커피를 자주 마시고 있음. ㉡
- 글을 쓰는 목적: 카페인 섭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친구들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지 않게 설득함. ㉢
- 기타 유의할 사항: 선생님께서 글쓰기에 대해 평소에 강조하시는 점 중 다음 사항은 이번 글에서 꼭 반영하고자 함.
 1. 문단의 화제가 명료하게 드러나야 함. ㉣
 2. 상황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 함. ㉤

(나) 학생의 초고

카페인을 비교적 안전한 물질로, 적당량을 섭취하면 졸음이 가시고 피로감이 덜해지는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허용량을 초과하여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부작용이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카페인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허용량은 어느 정도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체중 1 kg당 2.5 mg을 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체중 50 kg인 청소년의 경우 카페인 섭취량이 하루에 125 mg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125 mg은 어떤 식품을 얼마나 먹으면 섭취하게 되는 양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주로 섭취하게 되는 식품은 탄산음료(에너지 음료, 콜라 등)와 커피류이다. 이들 식품의 카페인 평균 함유량을 살펴보면, 에너지 음료 한 캔(250 ml)에는 62.5 mg, 콜라 한 캔(250 ml)에는 23 mg, 커피 한 캔(175 ml)에는 84.4 mg이 들어 있다. 체중이 50 kg인 청소년이 하루에 에너지 음료 두 캔을 마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섭취 허용량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탄산음료나 커피류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즐겨 먹는 초콜릿이나 과자, 사탕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초콜릿 30 g짜리 한 개에는 16 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체중이 50 kg인 청소년이 커피 한 캔과 콜라 한 캔을 마시고 초콜릿 두 개를 먹으면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간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A]

[B]

6. (가)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제시한다.
- ② ㉡을 드러내기 위해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 실태로 글을 시작한다.
- ③ ㉢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제시한다.
- ④ ㉣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문단은 질문의 방식을 통해 화제를 드러낸다.
- ⑤ ㉤을 반영하기 위해 독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제시한다.

7. <보기>의 ‘자료 해석’을 활용하여 (나)의 [A]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2013)에서 알게 된 내용 카페인 함유량이 기준치(1 ml당 0.15 mg) 이상인 액체 식품은 포장 용기에 ‘고카페인 함유’ 여부와 ‘카페인 함유량(mg)’을 표시해야 한다.
↓	
자료 해석	카페인 함유 식품 중 일부 액체 식품의 포장 용기에서는 카페인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다.

- ① 초콜릿이나 과자, 사탕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 ② 체중 50 kg인 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섭취 허용량을 체중 60 kg인 청소년의 경우로 환산하여 제시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 ③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 ④ 카페인이 함유된 액체 식품 중에서 포장 용기에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은 것만 섭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이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 ⑤ 포장 용기에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액체 식품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추가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8. (나)의 [B]에 결론을 쓰고자 할 때, <조건>에 맞추어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글의 목적과 흐름을 고려하여, 독자가 유의할 점을 제시할 것.
-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것.

- ① 요컨대 초콜릿이나 과자, 사탕 등에 카페인이 들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카페인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어떤 식품에 카페인이 들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 ② 정리하자면 하루에 섭취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카페인의 총량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카페인 하루 섭취량이 하루 섭취 허용량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자.
- ③ 정리하자면 청소년과 성인에게 일어나는 카페인의 부작용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잘 알면 카페인을 덜 섭취하겠지만 잘 모르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④ 요컨대 하루에 섭취하는 각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 양의 합이 하루 섭취 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카페인을 섭취하다가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과 조금 더 유의하여 건강을 보호하는 것 중 무엇을 택하겠는가?
- ⑤ 요컨대 성인들이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을 보고 청소년들이 무심코 성인들을 따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른과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길과 어른 흉내를 내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길 중 어느 쪽으로 가겠는가?

- [9~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교지에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글을 신고자 함.
- 예상 독자: 교지를 읽을 친구들과 후배들

[학생의 글]

내 꿈은 공간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공간 디자이너는 건축, 토목, 조경, 기술 공학을 함께 고려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 꿈을 갖게 된 것은 ‘피아노 계단’ 이야기를 접하고부터다. 어느 도시의 한 지하철역에는 다양한 색깔로 채색된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이 있다. 일단 그 모양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이 계단에는 재미있는 요소가 또 있다. 이 계단에는 오르는 사람들의 운동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있으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되는 전기료가 기부금으로 누적되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는 전자 간판도 달려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보람도 느끼게끔 하여 계단을 이용하도록 재치 있게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공간을 새롭게 바꾸어 낸 사람이 바로 공간 디자이너

이다. 그는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에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실제로 주변에는 그런 공간들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어 그중 몇몇 곳을 찾아가 보기도 했다. 이 과정을 거쳐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어, 나도 사람들의 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로 공간을 창조해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이다.

이후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진학 계획을 세웠고, 공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먼 훗날 내가 디자인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미소 짓고 있는 나를 그려 보며, 오늘도 나는 내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려 한다.

9. ‘학생의 글’에서 활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직업과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제시한다.
- ②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어려움을 부각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 ③ 공간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이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하여 제시한다.
- ④ 공간 디자이너가 창조한 공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공간 디자인 작품의 미적 구성 원리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 ⑤ 공간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계기를 보여 주기 위해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 공간 디자인 작품을 예로 들어 제시한다.

10. 다음은 교지 편집장이 이메일로 보내온 수정 요청 사항이다. 이를 고려하여 학생이 자신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고 수정 요청 사항

-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선정할 것.
- 글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각 자료를 추가할 것.
- 직접 찾아가 본 공간 디자인 작품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것.
-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할 것.
- 진학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안내할 것.

- ① 글에 언급한 공간 디자이너의 역할과 나의 꿈을 연결하는 제목을 제시하자.
- ② 피아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첨부하자.
- ③ 우리 주변에서 환경과 어울리도록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의 위치 정보를 소개하자.
- ④ 공간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관련 영역의 책을 읽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자.
- ⑤ 진학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얻었던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하자.

11.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오늘은 겹받침 ‘ㄷ’의 표준 발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ㄷ’과 관련한 발음 원칙을 정리한 내용을 잘 보세요.

㉠ 겹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ㅌ]으로 발음한다.

㉡ 겹받침 ‘ㄷ’은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뒤의 ‘ㄱ’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어간의 겹받침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ㄴ,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선생님: 자, 그러면 겹받침 ‘ㄷ’을 갖는 말의 표준 발음이 ㉠~㉢ 중 어느 발음 원칙과 관련되는지 말해 봅시다. 모음의 장단(長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 생: _____ [가]

- ① ‘삶과 자연’에서 ‘삶과’의 표준 발음이 [삼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② ‘국수를 삶고’에서 ‘삶고’의 표준 발음이 [삼꼬]인 것은 ㉠, ㉢에 따른 것입니다.
- ③ ‘바람직한 삶’에서 ‘삶’의 표준 발음이 [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④ ‘삶에 대한 의지’에서 ‘삶에’의 표준 발음이 [살메]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⑤ ‘나의 삶만’에서 ‘삶만’의 표준 발음이 [삼만]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제19항]

○ 어간에 ‘-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먹이, 굳이, 같이 ㉠

[제25항]

○ ‘- 하다’가 붙는 어근에 ‘- 히’나 ‘-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꾸준히, 깨끗이 ㉡

○ 부사에 ‘-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더욱이, 생긋이 ㉢

- ① ‘급히 떠나다’의 ‘급히’는 ㉠의 ‘굳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② ‘방긋이 웃다’의 ‘방긋이’는 ㉠의 ‘같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많이 먹다’의 ‘많이’는 ㉡의 ‘꾸준히’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④ ‘깊이 파다’의 ‘깊이’는 ㉡의 ‘깨끗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일찍이 없던 일’의 ‘일찍이’는 ㉢의 ‘더욱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희: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내가 주도해서 ㉠ 준비하시라고 하셔.

경준: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영희: 응.

경준: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 있으셨니?

영희: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네가 직접 선생님께 ㉢ 물어서 알아봐.

경준: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영희: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 자기의 애송시라고 ㉤ 말했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 보는 건 어때?

- ① ㉠: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②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③ ㉢: 윗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쭙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④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⑤ ㉤: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다 ① ㉠ ①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눈이 크다/글씨를 크게 적는다. ㉢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 ② ㉤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키가 몰라보게 크는구나. 반의어 크다 ① ↔ 작다	작다 ㉦ ①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보다 덜하다. ㉧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반의어 작다 ↔ 크다 ①
--	--

- ① ‘크다 ①’과 ‘크다 ②’는 품사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 것이겠군.
 ② ‘크다 ① ①’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꾸면 ‘작다 ①’의 용례가 되겠군.
 ③ ‘크다 ②’는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작다 ㉣’과 반의 관계를 이루겠군.
 ④ ‘작다 ㉣’의 용례로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를 들 수 있겠군.
 ⑤ ‘작다 ㉣’의 용례로 ‘작은 실수를 하다.’를 들 수 있겠군.

15.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발을 넣었다.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물에 발을 넣었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합시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 ① ㉠: 목적어인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② ㉡: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③ ㉢: 목적어의 하나인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④ ㉣: 서술어인 ‘동참합시다’가 요구하는 부사어에 정확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⑤ ㉤: 부사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16.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 뒤혜는 모딘 도죽 알피는 어드본 길헤 업던 번개를 하눌히 불기시니 현대어 역: 뒤에는 모진 도적 앞에는 어두운 길에 없던 번개를 하늘이 밝히시니 중세 국어: 뒤혜는 모딘 중싱 알피는 기픈 모새 열본 어르믈 하눌히 구티시니 현대어 역: 뒤에는 모진 짐승 앞에는 깊은 못에 얹은 얼음을 하늘이 굳히시니
--

- ① ‘모딘’이 현대 국어의 ‘모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② ‘업던’이 현대 국어의 ‘없던’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어적기를 하였군.
 ③ ‘하눌히’를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 ‘·’가 쓰였군.
 ④ ‘모새’가 현대 국어의 ‘못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⑤ ‘열본’을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 ‘봉’이 쓰였군.

-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상계가 양주(楊朱)와 묵자(墨翟)의 사상에 ㉠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孟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孔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는 공자의 춘추 시대(春秋時代)에 비해 사회 혼란이 ㉡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특히 ‘의(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仁)’의 실천에서 찾고,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하였다.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해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그는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하고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특히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는 필연적으로 상하 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㉓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는 일종의 ㉕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하여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㉖ 역설하였다. 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는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③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 ④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있다.
- ⑤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8. 윗글의 ‘맹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② ‘의’의 실천은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 ③ 가정 내에서 ‘인’과 더불어 ‘의’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의’의 의미 확장보다는 ‘인’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⑤ 사회 규범으로서 ‘의’는 ‘인’과 대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19. ㉗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상의 올바른 이치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으니, 수양을 통해 이것을 깨달으면 이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 ② 바른 도리를 행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하니, 분별에는 직분이 중요하고, 직분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의가 중요하다.
- ③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난 성인들이 만든 것이지 인간의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 ④ 군자에게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어지러움을 일으키게 되고, 소인에게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남의 것을 훔치게 된다.
- ⑤ 저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이지, 나에게 어른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20. 윗글의 ‘맹자’와 <보기>의 ‘목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목적’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개인 간의 갈등과 사회의 혼란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의’를 통해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 ‘의’가 실현되어 사회의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의’의 실현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여 ‘의’를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 ① ‘맹자’와 ‘목적’은 모두 ‘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
- ② ‘맹자’는 ‘의’와 이익이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고, ‘목적’은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 ③ ‘맹자’는 이익의 추구를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목적’은 이익의 충족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맹자’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을 ‘의’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로 보았고, ‘목적’은 ‘의’의 실천을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 ⑤ ‘맹자’는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고, ‘목적’은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21. ㉘~㉚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㉘: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함.
- ② ㉙: 책임이나 부담 등을 더 무겁게 함.
- ③ ㉚: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시킴.
- ④ 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⑤ ㉚: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란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으로, 어느 사군자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 묵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문인들에게 시, 서예,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 이런 인식은 묵란화에도 이어져 난초를 칠 때는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붓놀림을 구사했다. 따라서 묵란화는 문인들이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石蘭)>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잎새들은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 있다. 도톰한 잎과 마른 잎, 둔중한 바위와 부드러운 잎의 대비가 돋보인다. 난 잎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는 단아한 품격을,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를, 묵직한 바위에서는 둔후한 인품을 느낄 수 있으며 당시 문인들의 공통적 이상이 드러난다.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글씨는 맑고 단아한 서풍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그림도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에서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화풍으로 바뀌어 갔다.

생을 마감하기 일 년 전인 69세 때 그랬다고 추정되는 ㉡<부작란도(不作蘭圖)>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준다. 담묵의 거친 갈필*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몇 가닥의 잎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다. 그 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 허공을 가르지만, 그 잎 역시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다. 그 잎과 평행한 꽃대 하나, 바람에 맞서며 한 송이 꽃을 피웠다.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묵란화에는 종종 심정을 적어 두기도 했다. 김정희도 <부작란도>에 ‘우연히 그린 그림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적어 두었다. 여기서 우연히 얻은 참모습을 자신이 처한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때 우연이란 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훈련된 감성이 어느 한 순간의 계기에 의해 표출된 필연적인 우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갈필: 물기가 거의 없는 붓으로 먹을 조금만 묻혀 거친 느낌을 주게 그리는 필법.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며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후대 작가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있다.
- ③ 특정한 입장을 바탕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논란을 소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해석을 근거로 들어 작품에 대한 통념적인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 ⑤ 대조적인 성격의 작품을 예로 들어 예술의 대중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2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문인들은 사군자화를 통해 군자의 덕목을 드러내려 했다.
- ② 묵란화는 그림의 소재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 ③ 유배 생활은 김정희의 서체와 화풍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 ④ 묵란화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에 전래된 그림 양식이다.
- ⑤ 김정희는 말년에 서예의 필법을 쓰지 않고 그리는 묵란화를 창안하였다.

2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완만하고 가지런한 잎새는 김정희가 삶이 순탄하던 시절에 추구하던 단아한 품격을 표현한 것이다.
- ② ㉠에서 소담하고 정갈한 꽃을 피워 내는 모습은 고상한 품위를 지키려는 김정희의 이상을 표상한 것이다.
- ③ ㉡에서 바람을 맞아 뒤틀리듯 구부러진 잎은 세상의 풍파에 시달린 김정희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에서 홀로 위로 솟구쳤다 꺾인 잎은 지식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김정희 자신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 ⑤ ㉠과 ㉡에 그려진 난초는 김정희가 자신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소재이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윗글에 나타난 김정희의 예술 세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예술 작품의 내용은 형식에 담긴다. 그러므로 감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형식으로써 내용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고, 내용과 형식이 꼭 맞게 이루어진 예술 작품에서 감동을 받는다. 따라서 형식에 대한 파악은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예술 작품의 형식은 그것이 속한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 형식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익히는 것은 작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술 창작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사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의 계승과 혁신의 문제는 예술에서도 오래된 주제이다.

- ① 전형적인 방식으로 <석란>을 그린 것은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한 것이겠군.
- ② 추사체라는 필법을 새롭게 창안했다는 것은 전통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군.
- ③ <부작란도>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한 것은 의미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시와 서예와 그림 모두에 능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양식을 이해하고 익힌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부작란도>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했다는 것은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자치 단체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져 왔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 자치 단체 자체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화’와 ‘경영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둘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 민간화는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업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화를 통해 수용되는 주민들의 요구는 제한적이므로 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기업의 특성상 공익의 추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한계가 있다. ㉡ 경영화는 민간화와는 달리,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 감시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간담회, 설명회 등의 주민 참여 제도는 주민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인데, 주민들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주민 참여 제도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A]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각 개인들은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전체 주민의 의사가 가지적으로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행정 담당자들도 정책 결정에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이 정책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될 것이다.

26.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앙 정부와 대비해서 기술하고 있다.
- ②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 참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지방 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주민 참여 제도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했을 때의 효과를 말하고 있다.
- ⑤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책 결정 방식의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2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기업의 이익을 중시하여 전체 주민의 이익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 ② ㉡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 ③ ㉠과 ㉡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④ ㉠과 ㉡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가 외부에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 ⑤ ㉠과 ㉡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에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8.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재원 확충에 따라 지역 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어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해당 정책에 대해 주민 투표를 실시했는데 주민의 80%가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52.5% 대 47.5%로 찬성이 많았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하여 주민 간에 반목이 심해졌다.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상당수의 주민들은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주민 투표 제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주민들이 다른 정책에 대한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 ① 찬성이 더 많은 투표 결과를 보니,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고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견해가 대립하는 것을 보니,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보니,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다른 정책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는 것을 보니,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인 경우에도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물체가 점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점탄성이란 무엇일까? 점탄성을 이해하기 위해 점성을 가진 물체와 탄성을 가진 물체의 특징을 알아보자. 용수철에 힘을 가하여 잡아당기면 용수철은 즉각적으로 늘어나며 용수철에 가한 힘을 제거하면 바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데, 이는 용수철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용수철은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즉각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꿀을 평평한 판 위에 올려놓으면 꿀은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흐르는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는 꿀이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꿀은 힘과 변형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물체가 힘과 변형의 관계에서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즉각성’과 점성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지연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점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물체를 점탄성체라 한다. 이러한 점탄성을 잘 보여 주는 물리적 현상으로 응력 완화와 크리프를 들 수 있다. 응력 완화는 변형된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인 응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크리프는 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변형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이다.

응력 완화를 이해하기 위해 고무줄에 힘을 주어 특정 길이만큼 당긴 후 이 길이를 유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외부에서 힘을 주면 고무줄은 즉각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힘과 변형의 관계가 탄성의 특성인 ‘즉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늘어난 고무줄의 길이를 그대로 고정해 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고무줄의 분자들의 배열 구조가 점차 변하며 응력이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이는 점성의 특성인 ‘시간 지연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점탄성체의 변형이 그대로 유지될 때, 응력이 시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현상이 응력 완화이다.

이제는 고무줄에 추를 매달아 고무줄이 일정한 응력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고무줄은 순간적으로 일정 길이만큼 늘어난다. 이는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성체와 같이 분자들의 위치가 점차 변하며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크리프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유리창 유리의 아랫부분이 두꺼워지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점탄성체의 변형에 걸리는 시간이 물질마다 다른 것은 분자나 원자 간의 결합 및 배열된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나일론과 같은 물질의 응력 완화와 크리프는 상온(常溫)에서도 인지할 수 있지만, 금속의 경우 너무 느리게 일어나므로 상온에서는 관찰이 어렵다. 온도를 높이면 물질의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일론의 경우 온도를 높임에 따라 응력 완화와 크리프가 가속화되며, 금속도 고온에서는 응력 완화와 크리프를 인지할 수 있다. 모든 물체는 본질적으로는 점탄성체이며 물체의 점탄성 현상이 우리가 인지할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용수철의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성’을 갖는 것은 점성 때문이다.
- ② 같은 온도에서는 물질의 종류와 무관하게 물질의 유동성 정도는 같다.
- ③ 물체가 서서히 변형될 때에는 물체를 이루는 분자의 위치에 변화가 없다.
- ④ 유리창의 유리 아랫부분이 두꺼워지는 것은 ‘시간 지연성’과 관련이 있다.
- ⑤ 판 위의 꿀이 흐르는 동안 중력에 대응하여 꿀의 응력은 서서히 증가한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가) 나일론 재질의 기타 줄을 길이가 늘어나게 당긴 후 고정하여 음을 맞추고 바로 풀어 보니 원래의 길이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기타 줄을 길이가 늘어나게 당긴 후 고정하여 음을 맞추고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니, 매여 있는 기타 줄의 길이는 그대로였지만 팽팽한 정도가 감소하여 음이 맞지 않았다.
- (나) 무거운 책을 선반에 올려놓으니 선반이 즉각적으로 아래로 휘어졌다. 이 상태에서 선반이 서서히 휘어져 몇 달이 지난 후 살펴보니 선반의 휘어진 정도가 처음보다 더 심해져 있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선반이 서서히 휘는 속력은 따뜻한 여름과 추운 겨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① (가)에서 기타 줄이 원래의 길이로 돌아간 것은 기타 줄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군.
- ② (가)에서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달라진 것은 기타 줄에 응력 완화가 일어났기 때문이군.
- ③ (가)에서 나일론 재질 대신 금속 재질의 기타 줄을 사용한다면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더 빨리 감소하겠군.
- ④ (나)에서 선반이 책 무게 때문에 서서히 변형된 것은 선반이 크리프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겠군.
- ⑤ (나)에서 여름과 겨울에 선반의 휘어지는 속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선반이 겨울보다 여름에 휘어지는 속력이 더 크기 때문이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덤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린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래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있다. 한편, 전자는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주관적 정서의 표현에, 후자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상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①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 ③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군.
- ④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각각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33. ㉠, ㉡과 관련지어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을 나타낸다.
- ② (가)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 ③ (가)의 ‘찬란한 슬픔’은 ㉠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정서를 나타낸다.
- ④ (나)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나타낸다.
- ⑤ (나)의 ‘가볍게 눈을 쓰는’은 ㉡을 경험하기 위한 대상의 요인을 나타낸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삶답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이 도시의 생활환경이 왜 자연을 파손시키느냐의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동진강 하구의 삼각주 개펄에서 새 떼를 만난 것이다. 실의의 낙향 생활로 술만 죽여 내던 내 갇힌 생활 안으로 나그네새의 울음소리가 화톳불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새가 내 머릿속으로 자유자재 날아다녔다. ㉠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 새 중에서도 동진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춘 도요새였다. 나는 도요새를 찾아 헤매었다. 그중 중부리도요를 발견하기 위해 휴일에는 정배형과 함께, 그 외의 날은 나 혼자서 동남만 일대의 습지와 못과 개펄을 싸돌았다. 그러나 봄은 짧았고 곧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그때는 이미 물떼새목의 도요새과에 포함된 그 무리는 우리나라 남단부를 거쳐 휴전선 하늘을 질러 북상한 뒤였다. ㉡ 다시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을 만해의 임처럼 기다렸다. 그래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의 툰드라에서 편도 일만 킬로미터를 날아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는 그 작은 새 떼의 길고 긴 여정에 밤마다 동참했던 것이다. 나의 일상이 너무 권태스러울 정도로 자유스러우면서, ㉢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의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밀려들었다. 그리고 떠남의 자유와 고통에 대해 여러 말을 재잘거렸다.

— 우리는 여름에 그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번식하여 가을이면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오른다.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얇은 햇살 아래 파르스름하게 살아 있던 이끼류와 작은 떨기나무가 잿빛으로 시들고, 긴 밤이 저 북빙의 찬바람을 몰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여정의 채비를 차린다. 여름 동안 부쩍 큰 새끼들도 날개를 손질하며 출발의 한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정이다. 처음 떠날 때, 우리는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창공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날 때는 다만 혼자 날 뿐이다. 마라톤 선수가 사십이 점 일구오 킬로를 완주할 때는 오직 자기 자신의 극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듯, 작은 심장으로 숨 가빠 하며 열심히 열심히 혼자 날아간다. 그렇다고 방향이나 길을 잃는 법은 없다. 혼자 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개체의 몸이지만 나는 속도가 일정하고 행로가 분명하므로 우리는 낙오되거나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오백만 년 전 신생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통의 긴 여행을 터득해 왔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궁 천지에 길을 열어 봄 가을 두 차례를 대이동으로 장식해 온 것이다. 오직 생활환경에 적응키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치부해 버린다면 인간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사악하고 잔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권력욕에 차 있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끝내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㉔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의 이런 재잘거림을 꿈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 왔다. 가을이 왔다. 그러나 이제 동진강 하류의 삼각주에서 중부리도요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니, 중부리도요보다 몸집이 좀 큰 마도요, 등이 불그스름한 민물도요도 볼 수가 없었다. 동진강은 이미 공장 지대에서 흘러내린 폐수로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많은 철새나 나그네새 중에 이제는 공해에 비교적 강한 몇 종류의 철새와 나그네새만이 도래할 뿐이다. 바다쇠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 무리와,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 등의 물떼새 무리가 그것이다.

나는 열 개의 미터글라스가 꽃힌 시험관꽃이를 들고 동진강의 지류로 수질 오염도가 아주 높은 석교천 독 위를 걷고 있었다.

(중략)

나는 시험관꽃이를 들고 자갈밭으로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이제 석교천은 살아 있는 물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석교천 물은 이미 죽어 버렸다. 아니, 악마의 혼으로 살아 있다. 이 폐유가 결국 동진강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강폭이 팔십 미터에 가까운 동진강은 몰라도 이 석교천에는 분명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크롬산이나 수은을 함량하고 있을 것이다. 또 석교천 주민 중 십 년이나 이십 년 뒤 육가크롬화로 앓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자갈밭에 앉아 양말을 신었다. “두고 보라. 내가 기필코 석교천은 물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 누가 들으란 듯 내가 말했다. ㉕ 나 자신도 수천 번을 반복하여 이미 자기 최면에 걸린 말이였다. 누가 이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헛된 집념이라고 나를 비웃을지도 몰랐다. 아니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을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건너다니는 그 작은 [도요새]의 고통보다는 그 일이 내게 결코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리숙한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진술의 해학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35.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인물의 의식이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 ② ㉒: 인물이 대상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 ③ ㉓: 인물의 의식이 대상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 ④ ㉔: 인물이 대상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 ⑤ ㉕: 인물의 의지가 확고해진 상태에 이르렀다.

36.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요새들 간의 논쟁적 상황을 설정하여 도요새의 지혜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도요새의 말이라는 우화적 장치를 통해 인간 세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요새의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를 통해 도요새 무리의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도요새의 비행경로에 관한 관찰 결과를 제시하여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도요새의 습성과 인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37. 윗글의 [도요새]와 <보기>의 [매화]에 대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 안민영, 「매화사」 제2수 -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음.

- ① ‘도요새’는 인물에게 자신감을 주고, ‘매화’는 화자에게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
- ② ‘도요새’는 인물의 욕망을 대리 표현하고, ‘매화’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를 의미한다.
- ③ ‘도요새’는 인물에 종속된 존재를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에게서 독립된 존재를 상징한다.
- ④ ‘도요새’는 작지만 인물에게 교훈을 주고, ‘매화’는 어리지만 화자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 ⑤ ‘도요새’는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를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손에 든 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가 보니, 뜻밖에 호통 소리가 나며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걸의 머리를 베어 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기를,

“적장 벤 장수 성명이 무엇이나?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천자 급히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여쭙되,

[A]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 리 밖에 있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펄박을 당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합니다.”

하고,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본진에서 문걸의 목을 베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 와서 천자 곁에 앉아 있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다.

[B]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니,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그런 말을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얼굴을 보니,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사죄하여 말하였다.

“소장이 아버지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격절한 말썽을 폐하께 아뢰었으니 죄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소장이 죽을지언정 어찌 폐하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투구를 씌우고 대원수를 명하며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의 입국 공업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말한 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충렬은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담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다시금 위기에 처했던 천자·황후·태후·태자를 구출한다. 이후, 유심과 강희주를 구하고 모친과 부인을 찾은 후 장안으로 돌아온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십 리 뜰에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리던 마음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이어 호산대가 떠나갈 듯하였으며,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 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

금산성에 이르러 천자와 태후가 가마에서 바빠 내려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원수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사의 예로써 천자에게 인사를 올리니, 천자와 태후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하였다.

“과인의 수족을 만리타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옥문관으로 귀양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의 모친과 부인 강 낭자를 만나 데려온 일은 모두 천추에 드문 일이다.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기 어려운지라, 임이 열 개라도 어떻게 그 말을 다 하리오.”

태후가 유 원수를 치사한 후에 조카 강 승상을 부르시니, 강 승상이 바빠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지라,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천자가 내려와 강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기 바라오.”

한편 이미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장 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자에게 물러 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불효자 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 연왕이 반가움을 ㉠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너의 모친이 어디 오느냐?”

이때 장 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가 남편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들어가니, 연왕이 부인을 붙들고 말하였다.

“멀고 먼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 있는가? 백골이 된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 왔느냐. 뉘 집 자손이 모셔 왔느냐. 충렬아, 네가 분명 살려 왔느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북방 천리만리 호국 일당에 잡히어 죽을 줄 알았더니, 십 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갓은 고난을 겪은 충렬을 이렇듯이 다시 만나 영화를 볼 줄이야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 작가 미상, 『유충렬전』 -

* 옥새: 옥으로 만든,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

* 항서: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인다.
- ②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 ③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 ④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 ⑤ 전쟁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한다.

3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자’가 ‘장수’에게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장수’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 ②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유심’이 죽었다며 원통해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 ③ ‘군사들’ 중에 ‘유충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군사들’은 ‘유충렬’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다.
- ④ ‘유충렬’이 ‘천자’를 도와 전쟁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태자’의 말과 기상에 감화되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 ⑤ ‘천자’가 ‘유충렬’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유심’의 귀양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 ② [A]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
- ③ [B]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견해를 옹호한다.
- ④ [B]에서는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여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⑤ [B]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로 인해 두 차례의 시련을 겪는다. 그런데 첫 번째 시련은 충신인 부친 유심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두 번째 시련은 충신인 장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와 관련된다. 이로 인해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두 과업이 함께 해결되는가 하면 우연한 계기로 연이어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충렬은 영웅으로 귀환한다.

- ① 유충렬이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고난을 겪은 것에서, 유충렬의 첫 번째 시련은 ‘유심’의 유배로 인한 가족의 이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천자’가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낸 것에서,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은 ‘역적’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강희주’의 유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유충렬이 ‘강희주’를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것에서, 유충렬이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유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난 것에서, 우연한 계기에 가족 위기의 해소가 국가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남적’을 소탕하고 금의환향하는 유충렬을 백성들이 환대하는 것에서, 유충렬이 영웅으로 귀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 ② 친구는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 ③ 형은 온갖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성공했다.
- ④ 우리 팀이 상대를 큰 차이로 이기고 우승했다.
- ⑤ 삼촌은 병을 이기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였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매오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 구만 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 말동
차라리 식어지어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A]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녀이 되어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올거든
삼청동리(三清洞裡)*에 저문 하늘 ㉡ 구를 되어
㉢ 바람에 홀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玉皇) 향안 전(香案前)의 지척(咫尺)에 나아 앉아
흉중(胸中)에 쌓인 말썽 쓸커시 사뢰리라] [B]
어와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늦게 나니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끝이 없고
가 태부(賈太傅)*의 녀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落)하니
㉤ 백구(白鷗)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루는 듯 괴는 듯 남의 없는 입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오색(五色)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을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秋毫)나 갚으리라
백옥(白玉)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더니] [C]
장안(長安)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
일모 수죽(日暮脩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할사*] ... [D]
유란(幽蘭)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E]
약수(弱水)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삼청동리: 신선이 사는 동네 안.
- * 초객: 초나라의 시인 굴원.
- * 가 태부: 한나라의 태부 가의.
- * 일모 수죽: 해 질 녘 긴 대나무.
- * 취수도 냉박할사: 푸른 옷소매도 차디차구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여 상대방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④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훈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경물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44.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
- ② ㉡: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 ③ ㉢: 화자와 대상의 만남을 도와주는 매개
- ④ ㉣: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
- ⑤ ㉤: 화자가 교감을 나누는 존재

45.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만분가」는 유배를 간 작가가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연군(戀君)의 마음을 표현한 유배 가사의 효시이며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가사 문학의 대표작인 「속미인곡」 역시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만분가」의 형식을 계승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보기 2>

모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가]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여 꽃잠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옥(玉) 같은 얼굴이 반(半)이 넘게 늙으셨네] [나]
마음에 먹은 말썽 슬카장 삶자 하니] [다]
눈물이 바라 나니 말썽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었으니
방정맞은 계성(鷄聲)에 잠은 어찌 깨었는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결에 일어나 앉아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라]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식어지어 낙월(落月)이나 되어 있어] [마]
임 계신 창(窓)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① [A]와 [마]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B]와 [다]에는 마음에 담아 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 ③ [C]와 [나]에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 ④ [D]와 [가]에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함이 담겨 있다.
- ⑤ [E]와 [라]에는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